

부처님오신날 특집

부처님 전기를 읽읍시다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이고, 부처님의 삶은 곧 그 사상을 나타낸다. 부처님의 삶 자체를 알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또 한 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좋은 책 11권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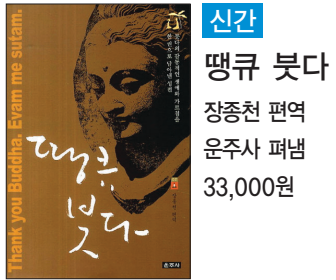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6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www.unjusa.com
온주사 (02)3672-7181

'신비' 벗겨낸 부처님의 생애



신간
매큐 붓다
장중천 편역
온주사 펴냄
33,000원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이다. 목숨을 건 고행과 마음통찰, 삶에 대한 깊은 자애와 연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상하고 체계적인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려는 쉽 없는 전법의 노력 등 부처님의 모습과 일생을 연대기 방식으로 구성했다.

부처님은 신화 속의 가공인물이 아니다. 2,60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제도의 불평등과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위대한 선각자이다. 부처님은 평생 현실적인 주제를 통한 가르침을 전했으며, 세상과 동떨어진 초월신, 기적, 구원 응징 등의 감언이설 대신 오직 내 앞에 겪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한 권에

평생 지킨 일과 최대한 반영

초기경전에 근거해 실존적 인물 부각

원전에 충실하면서 난해한 서술 탈피

고통에 관한 가르침을 펼쳤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에 들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를 정해진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셨다. 이러한 일과는 35세에 성도한 이후 80세 입멸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책은 그러한 부처님의 일상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책은 빼알리 다섯 니까야와 한글 번역본, 한역 아함경에서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420경을 발췌하고, 다시 연대기적 연속성을 가진 경장, 율장의 전기파편과 마하바스투, 율리파티스파라 등 2차 전기 자료와 불 만한 전기 단행본 등을 두루 절충하여 요약한 성전이다. 기본적으로 니까야와 율장 등에 근거하며, 부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쉬운 일상적 언어와 구어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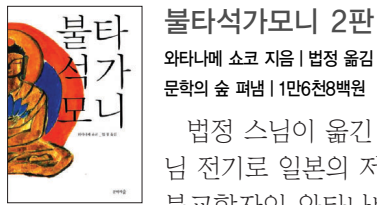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제 혹은 형식에 따른 니까야의 구성을 해체하고 붓다의 일생과 가르침을 연대기적 순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이 부처님 일평생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들을 만날 수 있게했다.

내용적으로는, 난해한 이론이나 교리의 나열보다는 핵심적인 가르침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명료한 가르침,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들을 간추렸다. 즉 무상, 고, 무아의 삼특상과 사성제, 삼법인, 팔정도, 연기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율바사나 통찰명상에 대한 가르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부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도 함께 다루어 부처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나아가 부처님을 둘러싼 사람들, 즉 제자들을 비롯해서 재가신도, 타종교인, 다른 종교사상가 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록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 및 부처님과 승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엿볼 수 있게 했다.

저자는 니까야의 해체와 새로운 구성을 통해 초인적, 신화적 존재로서의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간으로서의 부처님 모습을 소박하지만 감동적으로 복원해냈다. 또한 난해하고 번잡한 이론과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수행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가르침들을 담아내고 있다. 바로 지금 눈앞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을 안락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오랜 세월 부처님은 문화콘텐츠의 매력적인 원형이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종교를 넘어 철학, 사상, 과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2,600여 년 동안 숭한 상상력과 이론적 천재들이 더해지면서 본래의 모습은 다양하게 각색되고 발전(변형?)되어 왔으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대부분 그 프리즘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신비와 덧칠을 벗겨낸 붓다의 민낯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모든 각색과 주관을 견어낸 다르마(법)의 맨살은 어떤 것일까?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각색되지 않은 원형의 순수한 모습,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번역으로 읽는 부처님 일대기



불타석가모니 2판
와타나베 쇼코 지음 | 법정 옮김
문학의 숲 펴냄 | 1인6천8백원

법정 스님이 옮긴 부처님 전기로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와타나베 쇼코의 저술이다.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요소가 적절히 잘 어우러진 책은 법정 스님

이 1975년에 처음 번역했으며 2010년에 재출간 됐다. 2판에는 법정 스님이 입적 2주 전에 병실에서 구술하여 완성한 서문을 실고 있다. 기존의 부처님 전기 중에서 탁월한 작품으로 꼽히는 책은 방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요한 사건들을 종교적이면서 실증적이고 객관화된 시선으로 섬세하게 기록했다.

시인 고은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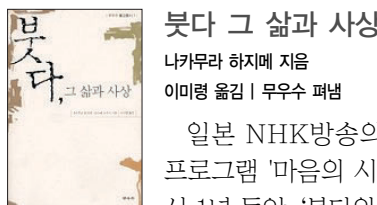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고은 지음 | 한태희 지음 | 지행 펴냄

노벨상 후보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인 고은이 아이들을 위해 쓴 부처님 전기다. 책은 고은 시인이 <법화경>, <화엄경>, <법구경> 등에서 어

린이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 스물일곱 편을 뽑아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책에 담긴 스물일곱 편의 이야기는 짧으면서도 강렬한 여운을 남기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직접적인 해답을 준다. 불교적인 색깔을 띠지않고 우화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관념 아닌 '구체적'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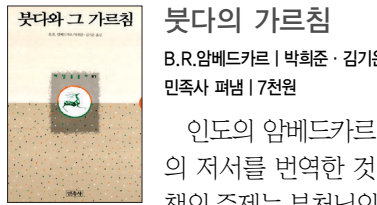
붓다 그 삶과 사상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이미령 옮김 | 무우수 펴냄

일본 NHK방송의 TV 프로그램 '마음의 시대'에서 1년 동안 '붓다의 삶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나카무라 하지메의 불교강좌를 연출자인 타나베 쇼

우지가 정리하여 엮은 책으로, 종교의 창시자로서가 아닌 인류의 스승으로서 붓다의 생애를 원시불교의 경전 구절들을 인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책은 관념이나 형이상학으로서의 깨달음과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문서와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있다.

부처님의 출가동기 '사문유출'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
B.R.암베드카르 | 박희준·김기은 옮김
민족사 펴냄 | 17천원

인도의 암베드카르 박사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책의 주제는 부처님의 다르마(법)에 관한 것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간

명하고도 위엄 있는 언어로 서술함으로써 그 다르마를 드러내고 있다. 책에는 새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기존 자료들은 부처님의 출가동기를 사문유출(사문유관)에 두었고, 거기에 이의를 단 다른 자료는 없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출가의 동기가 정치적 인 문제에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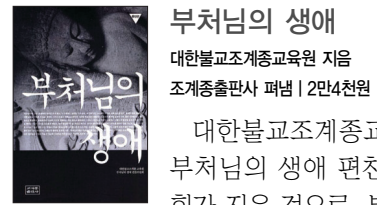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이중석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책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멘토'로서의 부처님에 초점을 맞춰 육신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붓다가 어

떻게 삶을 이끌어가면서 가르침을 펼쳤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경전과 율장, 수많은 참고자료에 근거하여 붓다에 대한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인간 붓다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우리와 동떨어진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하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불교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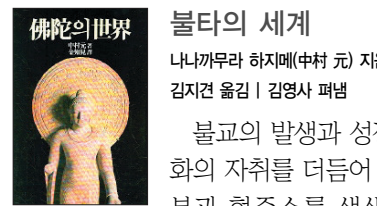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4천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가 지은 것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빨리 본, 산스크리트본, 한문본 경전 등을 근본

자료로 하고 인도고대사를 참조하여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불교입문서이다. 부처님의 삶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다. 관련 학자 일곱 명을 편찬위원으로 위촉하여 종단본(부처님의 생애)를 편찬했다. 책은 부처님의 삶을 생생히 표현한 불전도를 곳곳에 수록하여 사실성을 더하고 본문의 이해를 높였다.

풍부한 사진과 지도, 도형을 곁들인 수작



불타의 세계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 지음
김지현 옮김 | 김명사 펴냄

불교의 발생과 성장, 개화의 자취를 더듬어 그 근본과 현주소를 생생하게 기술했다. 세계적인 불교학계의 거장들이 불교성립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부처

님의 생애, 불교의 기본교리 및 불교학, 인도철학의 연구 성과를 집성하여 간결하게 서술했다.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발달·쇠망하기까지의 배경과 참모습을 풍부한 사진과 지도, 도형을 곁들여 적었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적 교리만이 아니라 부처님 재세시의 육성과 그 후 불교도들의 습격을 생생히 느끼게 한다.

부처님의 삶을 인간의 역사로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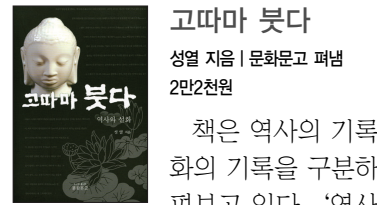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4천5백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운동가 법륜 스님의 부처님 전기로, 2,600여 년 전 다녀가신 부처님의 삶을 인간의 역사로 재조명했다. 부

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보다는 부처님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라는 물음에 답을 던진다. 부처님이 걸어간 삶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 우리 삶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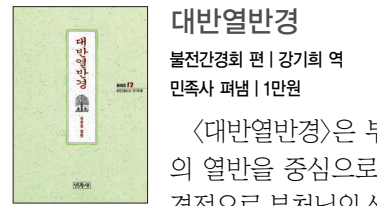


고따마 붓다
성명 지음 | 문화문고 펴냄
2만2천원

책은 역사의 기록과 설화의 기록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역사와 설화'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부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구분하여 보다 더 사실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자는 뜻이다.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를 통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만나게 해준다.

열반하셨을 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



대반열반경
불전간경회 편 | 강기희 역
민족사 펴냄 | 1만원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을 중심으로 설한 경전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의 사

건을 중심으로 서술된 이 경은 불신(佛身)의 상주, 열반의 상락아정(常樂我淨), 그리고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대반열반경)은 빨리경장 계통과 한역 경장 계통이 있다. 한자의 특수성 때문에 빨리 계통의 (대반열반경)과 한역 계통의 (대반열반경)에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

Advertisement for LED lighting products. Title: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Features: '발명 특허',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Includes images of various LED lighting fixtures.

Advertisement for Buddhist altar decorations. Title: '목각 단청 운각 법당장엄 5층 목탑'. Features: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Includes images of a pagoda and decorative elements.